

# 새만금 잼버리 성공개최 건인

### 전북도, 2020 아·태 스카우트지도자 서밋 유치 성공

전북도가 2023 새만금 잼버리를 앞두고 유치에 나선 '2020 아·태 서밋'의 개최권을 따냈다.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스카우트 이사회에서 전북도가 2020 아·태 서밋의 유치가 최종 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는 한국연맹의 이항복 중앙치프커미셔너와 최종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에게 따르면 경찰 국가인 네 팔에서 수려한 산악지형과 이색적 종교 및 문화, 그리고 저렴한 현지 체제

비 부담 조건을 제시했지만, 새만금이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지로서 도전과 개척, 희망의 메시지가 있고, 전북의 14개 시군 지자체가 함께 제공하는 영외과정활동 콘텐츠의 가치가 인정받아 아태지역 이사들의 다수 지지를 얻었다고 전해왔다.

내년 아·태 서밋에는 28개국 약 25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2020년 4월 중 4일간의 일정으로 스카우트지도자 총회, 프로젝트 보고회, 관광 및 동반자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게 된다.

전북도는 참가 지도자들에게 2023 잼버리 현장 소개와 추진상황 설명과

함께 동반 가족들에게는 전북도의 풍부한 문화와 역사, 관광 자원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임으로 새만금 잼버리 성공개최에 한걸음 다가가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아시아·태평양 스카우트 단체는 3000만명으로 세계스카우트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며 "내년도 아·태 서밋을 통해 2023 잼버리에 아·태 지역에서 대규모 대표단들이 파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한편 전북은 이번 대회 유치를 위해 열리는 국제청소년캠퍼리, 2020 아·태 서밋, 2021 프레잼버리 등 3년 연속 국제적인 스카우트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김진성 기자

# 국민연금, 정부 기금 평가서 '양호→보통' 등급 하락

### 의사결정·ALM·인력 관리 미흡

국민연금기금이 올해 기금 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양호' 대비 한 단계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내놓은 '2019년 기금 평가 결과'를 통해 "일본 연금 적립금관리운용특별법(GPIF),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등 규모와 성격이 비슷한 세계 5대 연금과 비교 평가한 결과 등급을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올해 1~5월 분석한 결과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제 82조에 따라 기금 평가제도를 도입, 매년 각 기금의 존치 여부와 운용실태, 수익률 등을 평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디스코드 도입, 책임 투자 확대, 해외 등 투자 다변화 등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의사결정 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고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체계의 선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문인력 관리 체계도 미흡했다.

기금운용평가단은 국민연금에 "2025년 이후 기금 규모 1000조원 시대에 부응하는 자산운용 시스템 구축

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면서 "향후 40년간 발생할 기금 규모의 변동을 고려해 매년 작성 중인 5년 단위 '중기 자산 배분'을 보완하기 위한 '장기시계 자산 배분 전략'을 추가로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기금운용평가단이 공무원연금 기금 등 39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운용실태와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총 평점은 71.5점으로 나타났다.

기금 유형별로 보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4개 사회보험성기금의 평점은 82.9점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29개 사업성기금(70.4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6개 금융성기금(69.5점)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금별로는 공무원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다른 기금들도 모두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기금운용평가단은 "4개 사회보험성기금은 중·장기 자산의 높은 상대수익률 달성, 적극적인 대체 투자를 통한 자산 다변화,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덕분에 높은 점수

를 받았다"면서 "다른 기금들도 자산운용시스템 정착, 자산운용 성과 향상 등의 노력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수산발전기금 등 23개 기금의 존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농어기금등 마련저축장기기금은 폐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통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농어기금등마련저축장기기금은 연간 저축 한도가 240만원으로 낮고 농어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다. 기금운용평가단은 "이 사업을 폐지한 뒤 저소득층 농민에 특화된 대체 지원사업 발굴을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 언론진흥기금 사업과 내용이 유사했다.

2022년 말까지 조건부 존치한 뒤 언론진흥기금과 통합을 준비하도록 권고했다.

23개 기금의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11개 사업은 통·폐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20개 사업은 성과지표 보완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기금운용평가단은 권고했다. /뉴시스

# 익산시, 내달부터 빈용기 반환수집소 시범 운영

익산시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용기 반환수집소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빈용기 반환수집소는 인화동 임시공영주차장에 설치되며 오는 6월 3일부터 운영된다.

빈용기는 보증금제도에 따라 일반 소매점에서 음료수병과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으로 일일 최대 30병까지 교환 가능하다.

그러나 다량으로 반환하는 시민은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고 소매점은 저장 공간이 부족한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해 전북도에서 처음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이 수집소에는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이 상주(일일 4시간)하고 반환물량 제한이 없어 다량으로 반환하는 시민들의(취약계층, 전문 수집인 등) 편의 제공과 소매점 불편을 해소한다. /익산=장영민 기자



남원거점스포츠클럽과 원주스포츠클럽 고영호 운영위원장, 익산스포츠클럽 김수완 지도자, 도 체육회 오두석 클럽육성과장이 대한체육회의 '2018년 스포츠클럽 시상식' 수상자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 스포츠클럽 활성화 기여... 영광의 얼굴들

### 남원스포츠클럽 · 고영호 · 김수완 · 오두석 대한체육회장상 수상

전북지역 스포츠클럽들이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 '선진국형 체육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29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남원거점스포츠클럽과 원주스포츠클럽 고영호 운영위원장, 익산스포츠클럽 김수완 지도자, 도 체육회 오두석 클럽육성과장이 대한체육회의 '2018년 스포츠클럽 시상식' 수상자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대한체육회는 전국 공공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투명성과 기획, 운영, 성과, 기여도 등의 평가를 통해 우수

클럽(단체)과 개인을 선정했다.

남원거점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는 동시에 재정자립도 매우 성실하게 달성해 지역 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영호 운영위원장은 원주스포츠클럽을 안주군민의 체육복지 증진과 체육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핵심기관으로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수완 지도자는 야구 종목 지도를 통해 익산지역의 유소년 야구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장은성 기자

오두석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스포츠클럽 업무를 담당하면서 1개 시군 1개 스포츠클럽 운영을 목표로 도내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또 전주와 정읍, 부안이 올해 신규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

최형원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체육 인재 육성과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도내 스포츠클럽들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18년 스포츠클럽 시상식에서 이들 모두 대한체육회장상을 받았다. /장은성 기자

# 장애인 의료비 환수고지 불응시 독촉·압류

무면허 의료기관이 장애인의료비를 부정하게 수급했거나 잘못 지급했을 경우 이를 환수할 세부기준이 정해졌다.

29일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장애인의료비는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1차 외래진료는 본인부담금 1500원 중 장애인의료비는 절반인 750원부터 지원한다. 1·2·3

차 입원시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차상위 14%)를 부담해야 할 경우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 장애인의료비 예산은 총 435억원에 이른다.

장애인의료비 부담이득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지난해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며 마련된 바 있다. 개정법률에서는 환수 및 결손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환수 기준

을 명시했다. 장애인의료비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해야 한다. 고지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압류 절차를 밟게 된다.

또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소멸시효가 끝난 경우 ▲채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상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환수 대상자 재산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 처분한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